大巡真理의 종旨에 나타난 信에 관한 理解

-東學의 經典과 比較을 中心으로-

金正泰

목次

I. 머리말
II. 東學의 經典에 나타난 誠·敬·信
   1. 鄭學에 관한 기초적 이해
   2. 東學의 基準에 나타난 신(信)의 개념
   3. 始初(始初) 최시형이 신(信)의 特性
   4. 大巡의 王・王

I. 머리말

대순사상과 동학의 연관성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관성을 증명하는 내용은 『道經(道經)』의 여러 장·절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1) 그러나 양자간에는 대조적인 믿음이 양립(兩立)하고 있는데, 그것은 동학 신도들이 대순사상을 "동학의 아류" 정도로 폄하(贬下)하고 있으며, 상체념을 따르는 신도들은 상체께서 동학을 완성시킨 존재로 신앙하고 있는 것이 그것의 좋은 예일 것이다.2)

이러한 대조적인 믿음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서로

* 前 대전대학교 대순중학과 교수
1) 「道經」의 내용중 동학과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는 내용은 대략 30장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2) 金錫은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두 종교체계의 만남이 있게된 배경을 시대적, 인물적 배경으로 나누어 양자간의 관련성을 「東學과 중산교의 만남」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의 입장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상황을 극복하고 상생(相生)의 근거를 찾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요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앞서 언급한 동화과의 관련성과 대조적인 신앙에 착안하여, 성경신의 내용을 매개로 그것의 비교를 통해 그것이 지니고 있는 구체적 의미를 밝히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연구의 방법은 각각의 경전에 나타나는 성경신과 관련한 내용을 일차적으로 해석하고 그 특징과 의미를 살펴본 다음 결론의 내용에서 각각의 내용 비교를 통해 그것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보겠다.

II. 東學의 經典에 나타난 誠・敬・信

1. 동학에 관한 기초적 이해

동학은 1860년(철종 11) 경주(慶州) 사람 최제우(崔濟愚)에 의하여 창도된 조선 후기의 대표적 신종교이다.

최제우는 전통적인 유교(儒敎) 가문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유교 경전을 배워, 성인이 되어서는 지방의 유학자로 이름이 나 있었다. 당시 한국은 어린 현종왕의 즉위로 외척(外戚)의 세도정치가 계속되면서 정권대불로서 지배층의 알력이 극도에 달하였고, 양반과 토호(土豪)들은 백성들에 대한 황포와 착취를 자행함으로써 도란에 빠진 백성들이 각지에서 농민봉기를 일으키는 등, 사회는 매우 불안한 상황에 있었다. 더욱이 일본을 비롯한 외세(外脅)의 간섭이 높게 심해져 국문이 위기에 처하는 한편, 국민의 정신적 자주 라고 할 수 있는 유교와 불교가 극도로 부패하여 조정은 민중을 제도(制度)로 능력을 상실하였다. 게다가 새로 들어온 서학(西學:천주교)의 세력이 높로 평창하여 그 이질적인 사고(思考)와 행동이 우리의 전통적인 그것들과 서로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 때 최제우는 서학에 대처하여 민족의 주체성과 도덕관을 바로 세우고, 국권을 끌어당겨 다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道)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구세제민(救世濟民)의 큰 뜻을 품고 양산(梁山) 천수산(千壽山)의 암굴 속에서 수도하면서 도를 갑구(渴求)한 지 수 년만에 ‘한울남(上帝)’의 계시를 받아 ‘동학’이라는 대도(大
동학은 서학에 대응할 만한 동토(東土) 한국의 종교라는 뜻으로, 그 사상의 기본은 종래의 종교사상과 유(儒)·불(佛)·선(仙:道教)의 교리를 토대로 하여, ‘인내천(人乃天) 천지지면심(天心即人心)’의 사상을 두고 있다. ‘인내천’의 사상은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지상천국(地上天國)의 이념과 믿음에 의한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에는 종래의 유교적 윤리와 퇴폐한 양반사회의 질서를 부정하는 반복건적이며 협성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있었다. 최재우가 ‘한울님’으로부터 받았다며 개시하는 ‘동학’이란 교명(教名)과 영웅(靈符)와 주문(呪文)이라고 한다. 영무란 백지를(白紙)에 한울님의 개시에 따라 그린 음의 부적(符籍)으로, 궁용형(弓乙形)으로 되어 있고 때로는 태극부(太極符)·궁용부(弓乙符)라고도 부른다. 주문은 3자로 된 서천주조화정(世天主造化定)이란 몽주(本咒)와 8자가 된 지기금지(至氣今至願為大降)이라는 강령주(降靈咒) 등이 있다. 이 영무와 주문은 동학을 포교하는 데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는데, 예컨대 주문을 외면히 칼춤을 추고 영무를 불여 태워, 그 재물 물에 타서 마시면 빈곤에서 해방되고, 병자는 병이 나아 장수하며 영제무공(永世無窮)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동학은 신분·직서(徳府)제도 등에도 반기를 들어 이를 비판하였으므로, 그 대중적이고 현실적인 교리는 당시 사회적 불안과 질병이 크게 유형하던 삼남지방에서 신속히 전파되었다. 포교를 시작한 지 불과 3~4년 사이에 교세는 경상도·충청도·전라도지방으로 확산되었으며, 이 같은 추세를 지켜보던 조정에서는 동학도 서학과 마찬가지로 불온한 사상적 집단이며 믿음을 혐오키는 또 하나의 사교(邪敎)라고 단정하고 탄압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1863년에는 최재우를 비롯한 20여 명의 동학교도들이 흉세무민(彌世詡民)의 죄로 체포되어, 최재우는 이듬해 대구에서 사형을 받고 순교하였다. 최재우를 비롯한 많은 교인들이 순교한 후에도 조정의 탄압이 계속되자 교인들은 지하로 숨어 들어가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었고, 한편 최재우의 뒤를 이은 2세 교조 최시형(崔時享:海月)은 태백산과 소백산 지역에서 은밀히 교세를 정비·강화하였다. 전부터 내려오던 접주(接主)제도를 확
대 개관하여, 교인들의 일단(一團)을 ‘포(包)’라 하고 여기에 포주(包主)를 두었다. 포주 위에는 접주·대접주, 그 위에 도주(道主)·대도주를 두는 한편, 포주·접주 밑에는 ‘육임(六任)’이라 하여 교장(教長)·교수(教授)·교집(教執)·교강(教講)·대중(大中)·중정(中正)을 두었다. 이와 같이 대중 속에 조작한 동학은 1894년(고종 31)에 발생한 동학농민만정의 주체가 되었고, 이 때 사형을 당한 최시형의 뒤를 이은 3세 교주 손병희(孫秉熙)는 동학을 천도교(天道教)로 개칭하여 계속 교세확장에 힘쓰게 되었다. 한편 동학은 이 때 시천교(侍天敎)라는 또 하나의 교파가 분리되었다.

그 후 조선 후기 1860년에 최재우(崔濟愚)를 교조로 하는 동학(東學)은 1905년 제3대 교조 손병희(孫秉熙)는 천도교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천도교의 수행은 개인적으로는 청원(請願)과 기복(祈福)이 수반되지만, 신앙체제를 확립하여 도성일덕(道成立德)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는 데 있으며, 집단적으로는 신앙공동체를 이루면서 희생·봉사로써 보국안민(輔國安民)·포덕천하(佈德天下)·광제창생(廣濟蒼生)에 이바지하는 데 두고 있다.

그의 수행을 위해서 정(誠)·경(敬)·신(信)을 실천 유리의 준칙(準則)으로 삼고 있으며, 종교행위로는 ① 주문(呪文), ② 청수(淸水), ③ 심고(心告), ④ 경전봉독(經典奉讀), ⑤ 기도, ⑥ 성미(誠米), ⑦ 시일식(侍日式), ⑧ 기념식 등이 있다. 주문은 본 주문이 13자로서 “사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이며, 강령주문(降靈呪文)은 8자로서 “지기금지 원위대강(至氣今至願為大降)”이다.

이 글을 수없이 반복하여 외우는데, 그 목적은 마음을 닦고(修心), 기운을 바르게(正氣) 하는 데 있다. 심고는 “한울님 감응하시기를 축원하면서 하고 자 하는 일에 대해 다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수는 모든 제례의식 때 깨끗한 물을 그릇에 따다 바치는 것이며, 경전봉독은 천도교 경전인 『東經大典』과 『龍潭遺詞』를 경건하게 읽는 것이다. 기도는 심고·청수봉전(奉 奉)·주문 읽는 것을 시간과 날짜를 정해놓고 행하는 것을 말하며, 성미는 우리들이 끝나마다 먹는 음식을 한울님의 녹(祿)이라고 생각하여 깔끔하고 쌀 등을 한 손가락씩 뜯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모아서 교단에 바친다.
시일식은 1주일에 한 번(일요일에 교당에서 행함) 집회하여 의식을 행하는 것이며, 기념식은 창도일(創道日) 등 기념할 만한 날에 의식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에서 주문·청수·시일·생미·기도를 특히 오관(五觀)이라 하여 교인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제사의식은 향아설위(向我設位)라 하여 제수를 모시는 사람을 향해 차려 놓는데, 이것은 조상이나 스승님의 영(靈)도 내 안에 모셔져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끝으로 향도교의 수행기본(修行基本)은 기일만도, 까달음만도 아닌 '수인사대천명(修人事待天命)'의 은총과 자격을 겸하는 데 있다. 3) 4)

2. 동학의 경전에 나타난 성·경·신

동학에서 사용하는 경전은 최제우가 지은『동경대전(東經大典)』과 동학교단에서 동학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만들었던 가사인 이론바 "동학가사" 또는 "천도교가사(天道教歌辭)"가 있다.

그 중 동학가사는 전통적인 한글 가사체(歌辭體) 형식을 빌려 일반 민중과 부녀자가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큰 호응을 받았다.

동학교도들은 이를 암송하거나 노래로 불러서 전해지기도 했고, 또는 구전되면서 경전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목판본으로 간행하기도 했다. 첫 작품은 최제우(崔濟愚)가 1860~1863년에 지은『용담유사(龍潭遺詞)』에 수록된 것들로 모두 한글로 지어졌다. 즉 1860년에 지은『용담가(龍潭歌)』 「안심가(安心歌)」 「교훈가(教訓歌)」 , 1861년에 지은『도수사(道修詞)』 「문중도소문담가(夢中老少問答歌)」 「검결(鏡訣)」, 1862년에 지은『권학가(勤學歌)』, 1863년에 지은『도덕가(道德歌)』 「홍비가(興比

3) 두산 세계대백과사전 ENCYBER 참고
4) 천도교(天道教)의 경전으로, 순환문 환자본으로 되어있으며, 저자는 최제우(崔濟愚)가 1880년(조선 고종 17)에 지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순환문 환자본인 동경대전은 1권 1책으로 천도교 교조 최제우(崔濟愚: 1824~1864)의 저서로, 1864년(고종 1) 저자가 사형 당할 때 같이 불태워졌는데, 후계자 최시형(崔時均)이 작성한 내용을 모아 영어로 1880년(고종 17)에 간행하고, 이어 1883년과 1890년에 중간화하였다. 동경대전은 본문과 별집(別集)으로 구성되었는데, 본문에는 포덕문(布德文)·논학문(論學文)·수덕문(修德文)·봉언기연문(不忘然然文)이 수록되었고, 별집에는 속문(誅文)·임춘시(立春詩)·정구(詠句)·강시(講詩)·장잠(長箴)·화결시 (和訣詩) 등이 실려 있다.
歌)」 등 9편이다. 『용담유사』에 실린 가사는 순한문으로 된 천도교 경전인『동경대전(東經大全)』과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더욱 질설하다. 서양 세력의 동침(東蝕)에 길은 우려를 나타내고 이에 맞서기 위한 정신자세로서 동학을 내세운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용담유사』 외에도 동학교단에서는 많은 가사가 만들어졌다. 그 중 필사본으로 전해지는 것은 용호대사(龍虎大師)라는 미지의 인물의『궁음가(弓乙歌)』, 이서구(李書九)의『체지가(採芝歌)』 6편 등으로 홍우(洪又)가 완찬한 『동학문명(東學文明)』에 실려 있다.

목판본으로 전해지는 것은 경복 상주지방에서 동학교라는 교단을 따로 연감주희(金周熙)가 간행한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반대한 자료는 김주희가 간행한 것으로 수집한 자료에 자신의 창작을 추가하여 1922~1933년에 펴낸 것이다. 총 40책에 이르며, 「검결」이 빠진『용담유사』 8편과 더불어 100여 편에 이른다.

최재우의 도통을 이어받아 동학교를 창건했다고 했는데도 그 내용은 『용담유사』 와 다르다. 즉 동학을 서학과 대립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오행사상에서의 동물을 상징하는 것이라 했으며, 표면에 있어서도 너무 관념적이이고 작자의 심경을 드러내기보다는 교리를 풀어하는 데 치중하였다. 동학가사는 가사문학에서 말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초기 동학사상 연구에 가장 소중한 자료이다.

이렇듯 동학의 『동학대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가운데, 대순진리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많이 발견되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바로 『敬信』이다. 먼저 『敬信』는 조합어로 이해되며, 이러한 성격을 지니는 『敬信』의 사용은 동학의 창시인 수운이 최초로 사용한 용어로 보인다. 그 이유는 수운 이전에는 『敬信』을 합쳐서 사용한 예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6) 그러면서 『동학대천』에서는 『敬信』이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啨道博而約 不用多言義 別無他道理 『敬信』三字
(나의 도가 넓어도 간략하니 많은 말과 뜻이 필요치 않다. 별 다른 도리

5) 金鎬, 「東學과 甎山敎의 만남」, (서울: 한누리 미디어, 2000), 84쪽 참조.
가 따로 없으니 성·경·신 석자 일 뿐이다.  6)

이처럼 ‘동경대전’의 ‘座箴’에 언급된 성경신에 관한 수문의 입장은 동학에서 제시되고 있는 성경신의 개념을 가장 명료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좌잡은 좌우명(座右銘)의 잔언(箴言)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 이하되는데, 사람이 지켜야할 덕목을 설정한 것으로 수행을 통해 반드시 실천해야할 종교적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문이 전한 수행의 핵심을 요약하면 그것은 성·경·신으로 요약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성·경·신에 대한 강조는 다른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大抵此道 心信为誠 以信为幻 人而言之 言之其中 曰可曰否 取可否否 再思心定 定之後言 不信曰信 如斯修之 乃至其誠 誠與信兮 其則不遠 人 言以成 先信後誠 吾今明諌 豈非信言 敬以誠之 無違訓辭…「修德文」

(…대체 이 도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정성이 되느냐. 믿음을 신자로 줄여 보면 사람의 말이라는 뜻이니 사람의 말 가운데는 흥고 그림이 있는 것을, 그 중에서 옳은 말을 취하고 그른 말은 버리어 거들 생각하여 마음을 정하다. 한번 작성한 뒤에는 다른 말을 말지 않는 것이 믿음이나 이와 같이 달아야 마침내 그 정성을 이루느라. 정성과 믿음이, 그 법칙이 달지 아니하나. 사람의 말로 이루어졌으니 먼저 믿고 뒤에 정성 하라. 내 지금 맑게 가르치려여지며 미더운 말이 아니겠는데가. 공경하고 정성 들여 가르치는 말을 어기지 말지이라.…) 「수덕문」

이처럼 동학에서 제시되고 있는 성경신은 동학 수행의 핵심이며, 요체(要 諷)임이 분명하다. 참고로 본 논문의 주제인 성경신이 대승진리에서 제시되고 있는 신조가이며, 그 중에서도 상요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6) 「東經大全」, 「座箴」

7) 신조(信條)는 신앙개조(信仰篤篤)의 준말로 교의(教義), 교령(教規), 교법(教法) 등의 말을 요약하는 모든 종교의 교리의 요체(要體)를 가리킨다. 좋은 뜻으로는 특히, 그리스도교의 용어로, 가톨릭교회에서는 신경(信經)이라고 한다. 성서가 제1차적인 신앙규준인데 비하여 신조는 제2차적인 규준이 된다. 신조를 뜻하는 말에는 크레도(creed)와 신의(ontology)의 두 가지가 있다. 이 중 신조를 뜻하는 크레도는 가장 오래된 의미이며, 현대교회의 공통적 신조인 사도신 경(使徒信經) 첫머리에 나오는 라틴어 크레도(credo:우리는 믿는다)에서 나온 말이 다. 그리고 신의는 ‘결합시키기’라는 그리스어에서 전화(転化)한 말이다. 이에 관해서는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① 사도신경이 12사도의 한 구절적의 고백이 결합되어 이루어졌다는 해석으로, 이는 역사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 ② 신조가 성서 속에 산재해 있는 교리를 하나의 간명한 문장으로 ‘결합시키기’
위에서 살펴본 ‘동경대전’의 내용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언급은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하겠으며, 여기에서는 먼저 성·경·신과 관련한 동학의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것에 대한 강조는 다른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到此用病 則或有差不差 故莫知其端 察其所然則誠之又誠 至為天王者 每
每有中不順道德者 一一無驗 此非受人誠敬邪
(이렇게 질병에 대처하는 것에 이르러 혹은 차도가 있고 없기 때문에
그 단서를 살펴본 바 그러나 성(誠)하고 또 성하여 하늘님께 이른 사람
이지만 많은 사람 가운데 도덕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같이 효험이
없으니 이는 성·경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8)

이처럼 성·경을 실천하는 것은 곧 천과의 합일을 이루는 근원이 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나아가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책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의 실천은 구체적으로 하늘음을 공경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다음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자.

성경(誠敬) 이자(二字) 자녀(子字) 자녀, 어머니, 하늘을 공경하며 / 자아히(自見時)
이던 신명 / 물약자효(勿棄自效) 아님리가 9)

위의 내용에서는 성경의 실천목표와 그 대상을 밝히고 있다. 그것은 성경을 실천하면 실례 병을 없어도 악을 쓰지 않고도 자연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며, 그러한 효험이 효과는 상제를 공경하는 것에서 비롯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 실천의 강조를 주장하고 있으며, 그것을 실천

정리한 것이라는 해석인데, 성서의 교리를 간명한 문장으로 정리하였다면 신앙문
답(가대기문)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이것 또한 신조의 개념해석으로는 약하다.
3 신조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기치하는 해석인
데, 이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이다. 따라서 신조는 다른 입장에 대하여서는 언제
나 진두심인 성격을 갖는다. 신조는 사도신경을 축발로 교회의 발전과 함께 여러
개 만들어졌고, 공동적 신조로서 대체로 보편적인 승인을 받고 있는 것은 ‘사
도신경’ 즉 ‘나케히 콘스타티노폴 신조’와 ‘케돈 신조’이며, 여기에 ‘아타나시
우스 신조’가 부가되는 경우도 있다.
8) 『東經大全』, 『布德支』
9) 『東經大全』, 『道德歌』
하는 방법은 물의 제거하여 마음의 순수를 찾는 것으로 집약된다. 이는 수행의 근본정신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을 응답유사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자.

이 세상 인심으로/ 물의 제거하여 내어/ 개과천선 되었으니 성경(誠敬)
2차 못 지킬까 11)

끝으로 그것의 실천결과는 인간의 도덕적 완성과 반드시 실천해야 할 당
위적 근거를 설정하고 있는데, 먼저 그러한 사실을 살펴보자.

대저 세상 사람중에/ 정성있는 그 사람은/ 어진 사람 분명하니/ 작심으
로 본을 보고/ 정성 공경 얻으면할가 12)

정성스러움을 간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어진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마음을 깊게 먹고 성경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뜻 수온이 제시하고 있는 수행의 방법에서 성경신의 실천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성경과 공경을 통한 도덕타임(道德時)의 실
현과 성경의 안정(安心安身)을 누릴 수 있는 실마리가 성경신의 실천에 있
음은 이해하게 된다.

10) 응답유사는 동학(東學)의 교조(敎祖) 수온(水雲) 최재우(崔濟愚:1824~1864)의 포
교 가사집(布敎詞歌集)으로 1881년(조선 고종 18)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60년(철종 11)에 지은 「응답가」「안심가(安心歌)」「교훈가(教訓歌)」를 비롯,
1861년에 지은 「도수사(道修詠)」「검결(劍訣)」「봉중노소문답가(夢中老少問答
歌)」, 1862년에 지은 「권학가(勤學歌)」, 1863년에 지은 「도덕가(道德歌)」「홍
비가(興比歌)」 등 9편의 가사를 모아서 엮은 책이다. 제2대 교주인 최시형(崔時
형)이 1881년(고종 18) 6월 충북 단양군 남면 천동(泉洞) 어귀륵(呂桂德)의 집에서
간행케 한 것이 있고(1책, 백사본), 1932년 《응답유사》라는 제목으로 김주희(金
周熙) 등의 동학가사를 더하여 한데 엮어서 인간(印刊:1책, 37장)한 것이 있다. 서
양세력을 동정(東贊)에 깔은 우려를 나타내고 이에 맞서기 위한 정신자세로서 동
학을 내세우는 뜻이 주가 되어 있다. 일반 민중과 부녀자 가 이해하기 쉽게라
한절 가사(歌辭體)로 만들어 동학의 사상을 펼쳤는데, 형식이나 문제는 비록 고전
가사와 같지만 개화기의 문제를 처음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개화기 가사의 효
시가 된다.
11) 「응답유사」, 「교훈가」
12) 「응답유사」, 「권학가」
3. 해월(海月) 최시형이 주장하는 성·경·신

이 장에서는 동학에서 주장되는 성·경·신과 관련하여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동학의 2대 교주인 해월(海月)의 주장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겠다.

해월은 조선 후기 동학(東學)의 제2대 교주(敎主)로 본관은 경주(慶州)이며, 그의 호는 해월(海月)이다. 또한 그의 초명은 경상(慶翔)으로 경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한때 조지소(造紙所)에서 일했 다.

해월은 1861년(철종 12) 동학에 입문하여, 1863년 초대 교주 최제우(崔濟 愚)에 이어 제2대 교주가 되었다. 64년(고종 1) 정부의 탄압으로 최제우가 처형되자 태백산(太白山)에 은신, 관현의 감시를 피해 안동(安東)·울진(蔚珍) 등지에서 포교에 힘썼다. 1871년 허락도 없이 이필제(李弼濟)가 교조의 신원문화(伸冤運動)를 전개, 영해(寧海)에서 민란을 일으킴으로써 탄압이 강화되자 소백산(小白山)에 피신했다.

그 후『동경대진(東經大全)』『용담유사(龍潭遺詞)』 등 주요 경전(經典)을 발간, 교의(教義)를 체계화했으며, 1884년 김신정변(甲申政變) 후 탄압이 완화되자 육임제(六任制)를 확립하고 전국에 육임소(六任所)를 설치, 조직을 강화했다. 1892년 손천민(孫天民)·손병희(孫秉熙) 등의 주장에 따라 교조의 신원, 포교의 자유, 탐관오리의 숙청을 충청도관찰사에게 요구했다.

1893년 2월 제2차로 각 도의 동학 대표 40여 명을 모으고 그 소두(疏頭)로서 박광호(朴光浩)를 내세워 왕에게 직접 상소, 대궐 앞에서 사흘 밤낮을 통곡하게 했다. 왕의 선처를 약속받고 해산했으나 시행되지 않자, 다시 보은(報恩)의 대도소(大都所)에 전국 교도들을 시켜 교조의 신원, 부패관리의 처단,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척취양창의(斥倭洋倡義)의 기치를 들고 제3차 신원운동을 계획하고 대대적인 시위를 강행하려 했다. 이에 당황한 조정에서 우선 경상도관찰사 조병식(趙秉式) 등 탐관을 파면하자 자신 해산했다.

1894년 고부 점주(古阜接主) 전봉준(全琫準)이 주도한 동학농민운동에 복 접(北接) 산하 동학도를 꼬기시켜 호응했으며, 9월 전봉준이 일본군 상륙과 정부의 요구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재기포(再起包)하자, 복접 각지의 점주들
에게 충고기를 명하여 10만여 명의 병력을 인솔하고 논산（論山）에서 남첩군（南接軍）과 합세했다. 관군・일본군의 혼성군과의 공주（公州）싸움에서 참패하고 또 장수（長水） 등지에서 연패하여 피신했다가 98년 원주（原州）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 처형되었다. 1907년 고종의 특지（特旨）로 신원되었다.

그럼에도 해외이 주장하는 성경신의 내용을 살펴보자.

四時有序萬物盛焉 晝夜顚覆日月分明 古今長遠理氣不變 此天地至誠無息之道也 國君制法 萬民和樂 大夫治法朝廷整肅 庶民治家家道和順 士人勤學國運興焉 農夫力穡衣食豊足 商者勤苦 財用不竭 工者勤業機械俱足 此人民至誠不失之道也

위의 내용은 성（誠）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해석한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대 우주의 원리로부터 인사에게 이르는 과정에서 성의 작용과 의미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와 관련한 또 다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순일之謂誠 使此順一無息之誠 與天地 同度同運則 方可謂之
大聖大人也
(순일한 것을 정성이라 이르고 쉬지 않는 것을 정성이라 이르나니, 이
순일하고 쉬지 않는 정성으로 천지와 더불어 법도를 같이하고 운을 같
이하면 가치 대성 대인이라고 이를 수 있느니라).

여기에서 나타나는 성의 의미는 일차적으로 순일(純一)이라고 명명한 우
주의 법도의 관련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것과의 함을 이룬 경지를 대성
대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경에 관한 해월의 입장을 살펴보자.

人人敬心則気血泰和 人人敬人則萬民來會 人人敬物則萬相來儀 偉哉敬之
敬之也夫
(사람마다 마음을 공경하면 기혈이 크게 화하고, 사람마다 사람을 공경
하면 많은 사람이 와서 모이고, 사람마다 물건을 공경하면 만상이 거동
하여 오니, 거룩하다 공경하고 공경함이어!)

해월이 주장하고 있는 경의 의미는 사람과 사람을 화합케 하는 것이며,
사람이 물건을 공경하게 되면 만상과의 함을 이루게 되므로 경의 의미는
인간과 인간 만상과 인간이 화합하고 함께 하는 원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宇宙間 充滿者 都是淳元之一氣也 一步足不敢輕舉也 余閑居時一一小我著
而趨前 其聲嘯地 驚起撫胸曰 「其兒 聲我胸痛矣」 惜地如母之肌膚 母之
肌膚所重乎 一襪子所重乎 的知此理體此敬畏之心 雖大雨之中 亦不諦怠也
此玄妙之理也 知者鮮矣 行者寡矣 吾今曰 始言大道之貫說也
(우주에 가득한 것은 도치 흔한한 한 기운이나, 한 걸음이라도 감히 경
솔하게 잡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한가히 있을 때에 한 어린이가 나막신
을 신고 빠르게 앞을 지나니, 그 소리 막을 올리어 놀라서 일어나 가슴
을 어루만지며, 「그 어린이의 나막신 소리에 내 가슴이 아프더라」고
말했었노라. 막을 소중히 여기기를 어머님의 삶같이 하라. 어머님의 삶
이 종가가 버인이 종가가, 이 이치를 바로 알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
음으로 씻어하면, 아무리 큰 비가 내려도 신발이 조금도 젖지 아니 할
것이니라. 이 현료한 이치를 아는 이가 적으며 행하는 이가 드물 것이니
라. 내 오늘 처음으로 대도의 진담을 말하였노라).

위에서 주장되는 내용은 앞서 언급한 경이 지니는 의미를 한층 더 구체적
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경은 만상만물을 내 몫처럼 공경하는
것으로 그것을 행할 때 만상과의 진정한 화합이 모세림을 강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은 해월이 주장하고 있는 신의 의미를 살펴보자.

仁義礼智非信則不行 金木水火非土則不成 人之有信如五行之有土 億千萬事都在信一字而已 人之無信如車之無輪也
(인의예에도 믿음이 아니면 행하지 못하고 금목수화도 토가 아니면 이루지 못하나니, 사람의 믿음 있는 것이 오행의 토가 있음과 같으나라. 억천만사가 도시 믿음 신 한자 뿐이다. 사람의 믿음이 없음은 수레의 바퀴 없음과 같으니라).

해월의 주장에 따르면 신(信)이 지니고 있는 중대한 의미는 만사를 행하고 이루는 가장 중요한 주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또 다른 내용을 통해 신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信一字 雖父母兄弟 難以通也 經 曰「大丈夫 義氣凡節 無信何生」是也
信心卽信天信天信信心人無信心一等神一飯囊而已
(믿음 신 한자는 비록 부모형제라도 변동하기 어려운 것이라. 경에 말씀하시기를 「대丈夫 義氣凡節 신 없으면 어디 나며」하신 것이 이것이 자. 마음을 믿는 것은 곧 한율을 믿는 것이요, 한율을 믿는 것은 곧 마음을 믿는 것이니, 사람이 믿는 마음이 없으면 한 동신이요, 한 밤주머니 뿐이니라).

위의 내용에 기초하면 신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으로, 믿는 마음은 궁극적으로 절대적 대상과의 연결을 뜻하는 것이며, 인간의 믿음이 부족하면 궁극적으로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됨을 지적하고 있다.

人或有誠而無信 有信而無誠 可嘆矣 人之修行先信後誠 若無實信則 未免
虛誠也 信信 誠敬自在其中也
(사람이 혹 정성은 있으나 믿음이 없고, 믿음은 있으나 정성이 없으니 가히 탄식할 일이로다. 사람의 닮고 행할 것은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정성드리는 것이니, 만약 설쳐 믿음이 없으면 헛된 정성을 먼저 못하는 것이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정성 공경은 자연히 그 가운데 있느니라).

이러한 내용에 근거한다면 성·경·신을 실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믿음(信)이 그 바탕에 내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성경의 실천은 근본적으로 신(信)을 전제로 한 것이
때 가장 의미있는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동학에서 주장되는 성경신의 의미는 그 실천적 당위성과 함께 그것의 상호 연관성을 밝히는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존에 나타난 성, 경, 신은 각기 따로 그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반해 동학에서는 그것을 하나로 묶어 그것의 상호 관련성을 통해 인간이 실천해야할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먼저 이러한 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해월의 주장을 통해 확인하여 보자.

我本云大先生 克誠克敬克信之大聖也夫 誠格于天 承乎天命 敬格于天 密 聽乎天語 價格于天契合乎天 茲以其為大聖乎 生而知之聖猶然乎 愚而欲 賢暗而欲明 凡以欲聖乎
(우리 수운대선생께서는 정성에 능하고 공경에 능하고 믿음에 능하신 큰 성인이셨시다. 정성이 한은에 이르러 천명을 계승하시였고, 공경이 한은에 이르러 조용히 천어를 들으시였고, 믿음이 한은에 이르러 목계가 한은과 합하였으나, 여기에 큰 성인이 되신 것이시다. 생각지하시신 성 인도 오하리 그려하셨겠다는 하물며 여러식은 사람이 어ذلك고 아두운 사 람이 받아지고자 범인이 성인이 되고자 할에라).

이처럼 수운은 성경신을 실천한 존재로써,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존재로 인식된다. 이는 성경신 실천의 당위적 근거를 수운으로부터 찾고자 하는 종교적 가르침과 그에 따른 교의적 특징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4. 동학의 경전에 나타난 신(信)

이 장에서는 동학에서 주장되는 신에 대한 강조적 내용을 통해 신이 지니고 있는 동학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동학의 경전에 나타나는 신(信)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자.

…在德不在於人 在信不在於工 在近不在於遠 在誠不在於求 不然而其然 似遠而非遠…
(…덕에 있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믿음에 있고 공부에 있는 것이 아니요, 가까운 데 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정성에 있고 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은 듯하나 그러하고 먼 듯하나 멀지 아니하나…).13)
义與信兮又禮智 凡作吾君一會中
(위리와 신의여, 또한 예의와 지혜로다. 무엇 나와 그대 한 모임을 지으리.) 14)

不知道之所在 度吾信之一如
도가 있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내 믿음이 한결같은가 해라리라. 15)

吾道는 博而約하고 精而一로써 主를 삼나니 博約精一은 誠敬信이 아니면
能지 못하리라. 信이 有한 然後에 能ひ 誠하고 誠이 有한 然後에 能ひ 通하
는지라 故로 在誠在人이라 함은 一則 誠에 在하고 一則 信하는 人に 前 在
한다 함이니라. 우리 도는 넓으으면서 간략하고 마음을 자세하고 한결 같이
함을 주로 삼나니, 넓고 간략하고 자세하고 한결같음은 정성·공경·믿음이
아니면 능지 못하리라. 믿음이 있는 연후에 능히 정성하고 정성이 있은 연
후에 능히 통하는지라. 그러므로 정성에 있고 사람에 있다함은 하나는 정성
에 있고 하나는 믿는 사람에게만 있다 함이니라. 16)

III. 대순진리에 나타난 성·경·신
이 장에서는『典經』의 내용에 근거하여 대순사상에 나타난 신(信)의 특
성과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겠다.

1. 대순사상에 나타난 신(信)의 개념

不受偏愛偏惡曰仁 不受全是全非曰義 不受專強專便曰禮 不受恣聰恣明曰
智 不受濫物濫欲曰信 17)

위의 내용은 상제께서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오상(五常)의 개념을 설정한
것으로 그 중에서 신의 개념은 남물납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와 관련하여 대순진리회 요람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 신에 대한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자.

한마음은 정(定)한 바엔 이익(利益)과 손해(損害)와 사(邪)와 정(正)과
편벽(偏僻)과 의지(依支)로써 바꾸어 고치고 변(變)하여 옮기며 어긋나
차이(差異)가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하며 하나를 들일라 없고 섞을 섞이라
하고 저것을 이것이라 알고 앞을 뒤라 안하며 망고(萬古)를 통(通)하되
사시(四時)와 주야(晝夜)의 여김이 없는 것과 같이 하고 만질(萬劫)을
경과(經過)되되 산하(山河)와 산악(山岳)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이 하
고 기약(期約)이 있어 이르는 것과 같이 하고 한도(限度)가 있어 정(定)
한 것과 같이 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며 정성(精誠)하고 또 정성하여
기대한 바 목적(目的)에 도달케 하는 것을 신(信)이라 한다.\(^{18}\)

위의 내용에 따르면 신이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정을 초월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부동의 마음가짐 내지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으로 요
약된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신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2. 대순사상에 나타난 신(信)의 특성

1) 자각(自覺)의 결과

일반적으로 신(信)은 신념(信念) 또는 신앙(信仰)과 관계된 것으로 인간의
이성 내지는 정의적 요소와 같은 관련성을 지니는 대상이다. 따라서 신(信)
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각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신념과 관계
된 의미로 해석된다.

신념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이 접촉하는 세계의 어떤 측면에 대한 감정·지
각·인식·평가·동기·행동경향 등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자세를 ‘태도’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신념은 그것의 인지적인 요소 및 측면을 형성한
d파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한 신념은 다소간에 서로 관련을 가지고 전제로서의
체계를 이루나, 그 구조에서는 개인자가 있어 고도로 조작화되어 안정성 있
는 신념체계의 소유자가 있는가 하면, 개개의 신념이 그다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다.
또한 신념은 객관적 사실 및 진실과의 일치에 있어 그 정도가 다양하다.
때로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 또는 일탈(逸脫)하는 수가 있다.
그 극단적인 예로서 속신(俗信)·미신·편견·고정관념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믿음을 갖추기 위해서는 각각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먼저 그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자.

자각이 없으면 확신이 서지 않는다.19)

위의 내용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믿음(信)을 갖추기 위해서는 각각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각이란 일반적으로 스스로 깨닫는 것을 이르는 말인데 이와 관련한 특성을 『典經』을 통해 살펴보자.

이тельный 봉기후가 순조로와 보리농사가 잘 되어 풍년의 정조가 보이는 지라. 농부들과 검보경, 장총헌은 지난 가을에 상제께서 들판을 보시고 보리 농사가 성공할 것을 얼 deallocs기며 보리 농사를 짓지 아니한 형렬을 비웃으니라. 이것을 듣고 상제께서 “이것은 신명공사에서 작성된 것인데 어찌 결심하기도 전에 농작을 예기할 수 있으리오” 하시고 종도들의 성급함을 탐하시니라. 오월 오일(五月五日)에 복우가 쏟아지니라.
보리이삭에 병이 들어 이삭이 마르기 시작하더니 결실이 되지 않는다. 쌀값이 뛰고 보리 수확이 없게 되자 농부들이 상제의 말씀을 깨닫고 감복하기만 하였도다.20)

위의 내용은 각각의 과정을 통해 상제를 향한 믿음의 과정을 도출할 수 있는 좋은 예로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서 특이한만한 점은 신명공사와의 관련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해 첫(七)월 이르러 쌀값이 더욱 뛰고 거기에 농작을 마져 심한 충재가 들어 인심이 더욱 사나와 지기에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신축년부터 내가 일체의 천지공사를 맡았으니 길년에는 농작물이 잘 되리라.”고 이르셨도다.21)

---
19)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서울: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53쪽. 이하 「대순지침」으로 표기함.
20) 『典經』, 권2, 1장 6절
21) 『典經』, 권2, 1장 7절
위의 내용은 앞서 살펴본 내용과 비교해볼 때 대조적인 상황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즉 앞서 제시된 전경의 내용은 풍년의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었으나, 결국 풍년의 결과를 도출하였고, 후반에 제시된 예문은 이는 반대로 풍년의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나 풍년이 있을 것을 예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반대의 대조적 결과는 상제께서 행하신 천지공사를 통해 결정된 상황임을 알려주고 계신다.

이것을 보고 상제께서 가라사대 “내가 천지공사를 행하면서부터 일척의 아포신(饗孝神)을 천상으로 올라 올렸으니 이웃에는 백성이 기근으로 죽는 일은 없으리라”고 하셨다. 22)

이러한『典經』의 예문에서 믿음과 관련한 대순상상적 특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란 상제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예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상제께서 구름을 떠나 익산(益山)에 이르시고 그 곳에서 왜어를 보내시다가 다시 회선동(会仙洞)에 이르시나라. 이곳에 김보경(金甫京)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집 위방에 상제께서 계셨다. 이 때 그의 모친의 위독함을 상제께서 아뢰시다. 이를 들으시고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오늘밤에 명부사자(冥府使者)가 병실에 침입하여 나의 자녀의 몸을 타서 환자를 해할 것이니 병실을 비우지 말고 묁한 사람이 방을 지키면서 방을 세우라.” 하시다. 보경이 이르침을 받아 가족한 사람석교 대로 장지라 않고 발을 세우기로 하고 가족들을 단속하였다. 여러날이 지나지 않아서 식구들이 줄을 막아서 상제의 이르침을 잊어 갔다. 이날 밤 보경이 깨어 발을 지키다가 잠에 빠졌던 바 이때 상제께서 위방에 급히 소리치 부르시나라, 그가 놀라 깨어 보니 별세 모친은 운명하여 있었다. 상제께서 말씀하신 나의 사자는 바로 병자에 갇히는 사람을 가리키신 것이라위 식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23)

위의 내용을 통해 볼 때 믿음과 각각은 같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다시 말하면 상제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깨닫는 일은 사람의 생명과도 같은 관련성을 지닌다. 아래의 내용은 그러한 사실을 더욱 보충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22)『典經』, 권2, 1장 8절
23)『典經』, 권2, 1장 34절
전쟁에 "농부가 곡식 종자를 감매리하여 두는 것은 토지를 믿는 가담이라" 하셨으니 가식(假飾)이 없는 신앙의 본의(本意)에 위배없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24)

또 상제께서 "춘무인(春無仁)이면 추무의(秋無義)라. 농가에서 추수한 후에 곡식 종자를 남겨 두나니 이것은 오직 토지를 믿는 연고이니라. 그것이 곧 믿는 길이니라" 하셨도다. 25)

2) 믿음의 주요대상

이 장에서는 믿음의 구체적 대상을 상제님의 말씀에 두고 그것과 관련한 내용을 통해 대순사상의 믿음(信)이 지니는 특성을 파악해 보겠다.

상제께서 청미년 정월에 형질에게 가라사대 "나의 말이 곧 약이라.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위안하기도 하며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거슬러게도 하며 말로써 망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며 말로써 죄에 걸린 자를 풀어주기도 하니 이것은 나의 말이 곧 약인 까닭이니라Oregon이 역히로의 이어행(忠言逆耳利於行)이라. 나는 허망한 말을 아니하나니 내 말을 믿으라" 하셨도다. 26)

위의 내용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상제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곧 믿음의 주요한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개의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교조(教祖)의 말씀과 연행이 신앙과 수행의 근본을 이룬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종교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근본이 되기도 한다. 즉 교조의 생사 여부와 관계없이 그의 가르침은 영원성을 지니면 현실 속에서 살아 음직이게 되는데, 그러한 종교적 특성의 바탕에 늘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연행을 기록한 경전이다. 따라서 교조를 추종하는 무리들에게 그의 말은 항상 진리이며, 신앙이 또 다른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한 또 다른 『典經』 내용을 통해 그것을 확인해 보자.

대인의 말은 구천에 이르러나 또 나의 말은 한 마디도 땅에 말아지지 않으리니 잘 믿으라. 27)

24) 「대순지침」, 53쪽
25) 「典經」, 교법 2장 45절
26) 「典經」, 교법 2장 1절
이처럼 상제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대인의 말이라고 규정하면서 그것의 가치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제의 말씀은 신앙 내지는 믿음의 또 다른 대상이며, 동시에 신앙적 측면에서 힘입어 가치와 동시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믿음의 강조와 그것의 가치는 다음의 내용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먼저 그것을 살펴보자.

나를 믿고 마음을 정직히 하는 자는 하늘도 두려워 하느라.

위의 사실에서 상제께서는 당신에 대한 믿음과 그것의 참다운 가치를 설명하고 계신다. 즉 상제께서 영원히 신도들의 마음속에 생생히 살아 계신 존재이며, 그것의 가능성은 상제께서 일생을 통해 전달하신 가르침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3) 믿음(信)과 상제신앙의 특성

일반적으로 신앙이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 내지 하나님이의 설리(敘理)에 대한 인간의 순종(順從)이라는 인격적 관계를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신물(神物)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에 대한 신뢰와 무조건 복종을 말하며, 불확실한 것을 주관적으로 확실하다고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사람들은 종교적 체험이나 의례(儀禮)를 되풀이함으로써 인격의 내부에 차츰 일정한 신앙적 자세가 형성되어 가는 것을 흔히 자각하게 된다. 이 심적인 태도가 바로 신앙이라는 것인데, 신앙은 개인생활을 통일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는 한편, 신앙의 표현인 신조·조직·제도를 가진 공동체의 생활을 통일하는 중심이 되기도 한다.

한편 신앙은 종교적 경험이나 그 밖의 초월적 존재에 대한 신념 및 태도에 불과하다. 개인에게 있어 모든 신념이 똑같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중심적인 것에서부터 말초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이다. 중심적인 것일 수록 잘 변화하지 않으면 한 번 변화하면 다른 신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27) 「典經」, 교범 2장 2절
28) 「典經」, 교범 2장 7절
미국의 심리학자 로키치는 그 중요성 및 모든 신념체계의 결합도를 기준으로 신념을 5종류로 분류하였다.

① 100%의 사회적 일치로 지지하는 근원적 신념,
② 개인적 경험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신념,
③ 저마다의 권위에 대한 신념,
④ 동일시되는 권위에서 나오는 신념,
⑤ 다소간 개인적 취미에 바탕을 두어 다른 신념과의 관련이 희박한 개별적 신념 등이 있다.

이처럼 신앙은 신념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인간은 지성(知性)을 통하여 직접적인 경험이나, 타인의 경험에 의해 얻어진 지식의 범위 안에서 사물을 생각하고 행동을 결정한다. 지식은 학문적 연구에 따라 무한히 변하면서 진보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지식의 확실성은 항상 불완전하다. 그러나 불확실하고 충분히 검증(検증)되지 않은 지식이라도, 하나의 가설(假説)로 인정되거나 주관적으로 완전하다고 긍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전적으로 지적(知的)인 근거에만 의거하여 생각이나 행동을 결정하는 심적 태도가 신념이라는 것이다. 한편 신앙은 정의(義意)의 면까지를 기능적으로 통일하면서 실존적 상황에서 생사를 결정 초월적 존재와 전인격적(全人格的)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신념은 합리적 경험의 범주에 그치는 사고형식을 갖는 데 비해, 신앙은 지(知)·정(情)·의(意)의 경험 전체에 관련될 뿐 아니라 경험을 초월한 영역에까지도 관련되기 때문에, 기성의 사고형식을 넘어선 새로운 것을 낳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과학이 진보하면 신앙은 불필요해진다는 사고방식은 신앙과 신념을 혼동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신앙은 다양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신앙의 대상, 심적 태도의 특색, 사회나 문화의 상황에 따라 신앙의 형태도 여러 가지로 다르다. 인간형성의 과정에 있어서도 유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신앙은 변화한다. 특히 청년기에는 종교문화에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입신(入信)이나 개종(改宗)이란 회심(回心)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은 점차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이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신앙의 여러 형태로 구별되기도 하는데, 이상적인 종교적 인격을 갖춘 가치
을 성자성(聖者性) 또는 성숙한 생산적 종교 정조(情操)라고 말한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상계께서는 화천하시기전 종도들에게 변함없는
믿음 내지는 신앙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먼저 그와 관련한 「典經」의 구절
을 살펴보자.

상계께서 무신년 어느날 고부인에게 “내가 머날지라도 그대는 변함이
없겠으나”고 말씀하시다가 부인이 대하여 여제 변함이 있겠나이까“고 대
답하였다.29)

이 대답을 듣고 상계께서 끝 한수를 친것도다.
無語別時情若月 有期來處信通潮30)

위의 내용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실은 일차적으로 삶과 죽음을 떠난 믿음
의 강조이다. 이는 상계에 대한 신앙적 태도를 살필 수 있는 내용으로 종교
체 내에서 신앙의 중요성과 그에 관련한 태도를 역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앞서 논의된 것처럼 종교에서의 믿음은 대개 영원성을 지닌다. 즉 생사의
관계를 떠나 그것의 지속성이 발휘됨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
적 특성은 내세와 같은 관련성을 지니며 나타나는데, 대순사상에서는 내세
적 요소보다는 상계의 재림(再臨)에 그것의 특성이 모아진다고 할 것이다.
상계께서는 「典經」의 여러 내용을 통해 재림의 약속을 강조하고 계신다.
따라서 상계에 대한 생사를 초월한 변함없는 믿음에 대한 강조가 대순사상
에 나타나는 신(信)의 특성이라고 할 것이다. 아래의 내용은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상계께서 어느날 차 경석, 김 광찬, 황 육중을 앞에 세우고 공우에게 몽
치를 들게 하고 윤경에게 칼을 들리고 “너희가 이 이후에도 지금의 스
승을 모시고 있듯이 변함이 없겠으니. 변함이 있으면 이 몽치로 더수구
니를 칠 것이오. 이 칼로 빠를 가를 것이나.”고 꾸짖기도 하고 타이르
시기도 하셨다.31)

29) 「典經」, 행록, 4장 23절.
30) 「典經」, 행록, 4장 24절.
31) 「典經」, 행록, 4장 41절.
녀희들은 이제는 이렇듯 나에게 추종하나 후일에는 눈을 떠서 바로 보지 못하리니 마음을 바로하고 덜을 닫기를 희وص라. 동학가사에 “많고 많은 저 사람에 어떤 사람 거리하고 어떤 사람 그리한가”와 같이 탄식중 이 저절로 나오려라.  

4) 신명(神明)에 대한 믿음

대순상상에 나타나는 주요한 특성 중 하나는 인간과 신명과의 조화적 관계에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구체적 논의는 그간의 내용을 통해 진행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이 장에서는 믿음과 신명과의 관계를 통해 대순상상에서 신(信)이 지니는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典經』의 내용을 통해 믿음과 신명과의 관계성을 밝혀보자.

상계에서 하루는 공우(公父)를 데리고 어디를 가실 때 공우에게 우산을 사서 들게 하셨도다. 공우는 상계께서는 원래 우산을 받는 일이 없었고 비록 비오는 날 걷기를 가실지라도 비가 몸에 범하는 일이 없었던 일을 생각하여 이상히 여기더니 뜻밖에도 비가 오는도다. 상계께서 공우에게 우산을 받으시라 하시니 공우는 상계께 받으시길 정하여 서로 사양하다가 함께 비를 맞이 옷이 홍색 되었으니 상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суж로는 우산을 들지 말라 의뢰심과 두마운을 품으면 신명의 음호를 받지 못하느냐.”고 하셨도다.

이는 신명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 글에 나타난 핵심요지는 신(信)에 대한 강조이다. 이처럼 신명의 보이지 않는 보호(保護) 즉 음호를 받기 위해서는 신명에 대한 확신과 그를 통한 일심의 견지(堅持)에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순상상의 특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대순상상에서 이상적 인간상을 실행하는 기초가 신인조화(神人調和)에 있다고 할 때 신명과의 조화와 음호를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신(信)이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대순지침』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믿음은 의심 없는 굳은 신념인 것이다.

32)『典經』, 교범 2장 9절
33)『典經』, 행록 4장 40절
성은 기심(欺心)이 없어야 하며, 경은 예절을 바르게 행하는 것이며, 믿음은 의심을 품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믿음은 의심을 버리는 것이며, 앞서 언급한 각각의 과정을 통한 확신의 결실을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앞서 논의된 것처럼 인간과 신명과의 조화를 통한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수행의 방법임을 감안한다.

먼 신명과의 조화적 관계를 이루기 위한 일차적 작업에는 반드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다.

5) 믿음과 생·사(生死)의 관계

대순상상에 나타나는 믿음과 관련한 또 다른 특성은 그것이 생사와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이와 관련한 사실을『典經』의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자.

김 자현은 유(六)월 어느날 상체에서 “나가 나를 믿느니”고 다짐하시기에 “지성으로 믿소며 고투화목 때에도 상체를 파왔나이다”고 믿음을 표명하였도다. 그리고 상체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장차 어리로 가리나 내가 없다고 폐해하여 잘 믿지 않는 자는 내가 다 잃으리라.” 이 말씀을 들고 자현은 “제가 못시고 따라가겠나이다”고 여유난 상체께서 다시 “어느 누구도 능히 따르지 못할지라도 내가 가서 일을 행하고 돌아오리 나 그 때까지 믿고 기다리라. 만일 나의 그늘을 떠나면 죽을지니라”고 이르렀도다.34)

너희들은 믿음을 나에게 주어야 내의 믿음을 받으리라.35)

상체에 대한 믿음의 결실은 분명 생과 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사실을 위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논의되는 즉음은 단순히 일상적인 즉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종교적 즉음을 내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앞서 논의된 것처럼 상체를 믿고 따르는 것은 궁극적 모습은 상체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며, 그것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된다. 그리고 그것의 확인은 위의 내용에서 “나의 그늘을 떠나면 죽울지니라”는 내용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렇듯 상체님의 말씀을 따르고 항상 잊지 않는 “시천주”의 강조는 생사와 관련한 믿음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순상

34)『典經』, 행록 5장 19절
35)『典經』, 교법 1장 5절
상의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6) 천지공사(天地公事)에 나타난 믿음(信)의 특성

이 장에서는 상제께서 행하신 천지공사에서 인간의 믿음을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는데 초점을 두어 그것의 내용을 통해 대순사상에 나타나는 믿음의 또 다른 특징을 확인하는데 있다. 먼저 그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자.

상제께서 이듬해 사월에 김 형렬의 집에서 상계를 개벽하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이 때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따라 행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그것을 비유컨대 부모가 모든 재산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얻어 쓰려면 쓸데 마다 열굴이 쳐다보일과 같이 날은 집에 그대로 살려면 얻어질 열려가 있으므로 불안하여 살기란 매우 괴로운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개벽 하여야 하나니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할도 아니오.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오.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상계의 대권을 주하여 천천히 도수를 둘어고지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 하시고 “너는 나를 믿고 협을 다하라”고 분부하셨다. 36)

위의 내용은 천지공사의 특성과 그 안에서 믿음의 관련성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예외 없이 믿음의 중요성은 강조되었는데, 천지공사는 대순사상에서 이성세계를 건설하는 기초적인 원리이며, 방법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너는 나를 믿고 협을 다하라”는 상제님의 말씀은 천지공사와 믿음의 상관관계를 살필 수 있는 주요한 내용이며, 이러한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다.

참고로 천지공사에서는 인간의 참여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공사의 방법으로 대두된다. 그리고 상제께서는 공사에 참여했던 종도들에게 항상 정성과 공경과 믿음을 강조하고 계신다.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사실을 내용을 통해 그것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

36) 『典經』, 공사 1장 2절
무신년, 철(七)월에 이르러 상계께서 원일을 이끄시고 부안 변산 우금암 (遇金岩) 아래에 있는 개암사(開岩寺)에 가시나라. 그때 상계께서 원일에게 삶은 석면이 한계와 숨 한 방과 청수 한 그릇을 방한에 착하고 석면의 청수 앞에 진설하게 하시고 향후 원일을 그 앞에 끌여앉히고 성남 섬 개비를 그 청수에 넣으시나라. 이때 갑자기 풍우가 크게 일어나고 홍수가 창일하는도다. 상계께서 원일에게 “이제 청수 한 동이에 성남 한 갑을 넣으면 천지가 수묵(水馬)이 될지니라. 개비이란 이렇게 취우니 그 리 알지이다. 만일 이것을 까고 이르기 전에 쓰면 죽해만 까칠 뿐이니 그렇게 믿고 기다리라”고 밀려주시고 진설해 하신 것을 모두 거두니 곧 풍우가 그쳤다. ⑳

위의 내용은 천지공사의 결과인 후천개벽(後天開闢)과 그에 따른 상제님의 당부와 가르침을 나타내는 것으로 천지공사의 결과로 나타나는 후천개벽에 대한 민음과 그것의 확신을 종도들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서 민음과 관련하여 간과해서는 안될 사실은 개벽은 정해진 때가 있는 것이며, 그 때를 어기게 되면 천지에 재앙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그 때가 설령 멀어 기다리기가 조금할 지라도 개벽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것을 믿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신다. 이러한 사실은 분명 천지공사에서 민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며, 현실을 살아가는 신도들에게 민음과 후천개벽의 관계를 다시금 설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할 것이다.

7) 민음과 해인(海印)의 관계

대순사상에서 제시되는 민음과 관련한 또 하나의 특장은 그것이 해인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해인은 일반적으로 “부처의 승기”로 해석된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민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해인의 확률은 결국 도통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典經』을 통해 나타나는 해인의 특성을 살펴보자.

형렬이 명을 쫓아 옥심사(六十四)패를 탐정하고 이심사(二十四)방위를 써서 으뜸이 가고 상계께서 그 환율 가지고 문밖에 나가서서 태양을 향하여 뿔사르시며 말씀하시기를 “나와 같이 지내자” 하시고 형렬을 돌아
보며 "나를 잘 믿으면 해인을 가져다 주리라"고 말씀하셨도다. 

위의 사실에 근거하면 상제에 대한 믿음은 해인과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 그러면 대순사상에서 이해되고 있는 해인의 의미를 살펴보자.

도주께서 해인사에서 돌아오신 다음 날에 여러 종도들을 모아놓고 "상계께서 해인을 인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여 어떤 문제로 생각함은 그릇된 생각이란. 해인은 만세 있지 않고 자기 장중(掌中)에 있습니다. 우주 삶라 만상의 모든 이치의 근원이 바다에 있으므로 해인이요, 해도진인(海島眞人)이란 말이 있느니라. 바닷물은 보라. 전부 전기이니라. 물은 휘려 내려가나 오르는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삶라 만상의 근원이 수기 를 흔수하여 생장하느니라. 하늘은 삼십육천(三十六天)이 있어 상계께서 통솔하시며 전기를 할으셔서 천지 만들음을 지배 자양하시니 냉성보화천존상계(雷聲普化天尊上帝)이시리라. 천상의 전기가 바닷물에 있었으니 바닷물의 전기로서 만들물을 포장하느니라"고 말씀하셨도다.

위의 내용에서 도주께서 밝히신 해인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것은 물건이 아닌 자신의 장중(掌中)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당시의 상황을 반증하는 것으로 상계께서 해인하신 후 많은 종도들은 각기 교단을 창립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통인패"와 같은 호신부를 제작하여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에게 보급한 일이 있다. 따라서 도주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염려하여 진정한 해인은 물건이 아닌 자신의 장중에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해인을 얻기 위한 일차적 조건은 상제님에 대한 믿음이다.

대순진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문의 하나인 기도주를 살펴보면 거기에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 至氣今至 願為大哉"이다. 이러한 상제님을 모시면서 조화가 정해지고 영세토록 잊지 않고 믿음을 전지한다면 만사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제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의 결과는 만자도 나타나며 이는 불타의 슬기와 그 의미를 통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만사를 알게되는 빛의 지혜가 해인이라면 이는 결국 상제님에 대한 변함없는 일심의 결과로 확득되는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아래의 내용은 믿음의 결과와 가치를

38) 「典經」, 교운 1장 62절
39) 「典經」, 교운 2장 55절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나를 믿고 마음을 정직히 하는 자는 하늘도 두려워 하느니라. 40)

부귀한 자는 자만 자축하여 그 명리를 듣우기에 마음을 쏟아 야 단 생각을 머금지 아니하나니 어느 저물에 나에게 생각이 미치리오. 오지 빈궁한 자라야 체 신세를 제가 생각하여 도성 덕パソ을 하루 속히 거다리며 운수가 조아들 때마다 나를 생각하리니 그들이 내 사람이니라. 41)

8) 믿음의 방법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믿음을 바탕으로 대순사상에서 제시되는 믿음을 이루는 구체적 과정 내지는 방법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먼저 그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자.

믿기를 할을 다르듯이 하라. 할을 너무 성급히 담기면 할이 깨어지나니 걱정이 당계야 하느니라. 42)

위의 내용에서는 믿음을 행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것의 결론은 성급함을 멀리하고 점진적인 자세를 통해 궁극의 목표를 달성함을 강조하고 계신다. 일반적으로 성급한 믿음은 평신 또는 광신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광신의 비극은 1212년에 프랑스 및 독일의 소년·소녀들이 일으킨 십자군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 십자군이라고도 하는 서유럽 십자군의 역사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고도 비극적인 에피소드는 당시의 교황 인노첸시우스 3세까지도 소년십자군을 권장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오를레앙 지방의 목동 에티엔이 성지 회복을 주장하여 3만의 소년·소녀를 모았고 독일에서는 콜론 지방의 소년 나폴라우스가 2만의 아이들을 집결시켰다. 그러나 모두 악덕상인들의 왕에 속아 아프리카 동지의 이국땅에서 노예로 팔렸고 도중에 배가 난파하여 바다에서 생명을 잃은 아이들도 많았다. 이 어린이십자군은 그 당시 사회 전반에 고조되었던 광신(狂信)을 잘 보여 주는 비극이다.

40) 「典範」, 교범 2장 7절
41) 「典範」, 교범 2장 8절
42) 「典範」, 교범 2장 35절
광신과 관련한 또 다른 예를 독일 나치스의 준 군사조직이었던 히틀러의 
개인 경호대였던 일명 SS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SS는 1925년 4월 국내의 
정보수집, 침보활동, 경찰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는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의 소규모 개인 경호대로 창설했다. 나치스 무장조직으로 독일과 유럽 
을 정복하려던 히틀러의 계획을 실행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1929년부터 
1945년 해체될 때까지 헤인리히 힐러(Heinrich Himmler)가 책임자였다. 광적 
인 인종주의자인 힐러는 신체가 건강한 순수 아리아인 혈통만 대원으로 뽑 
았다. 힐러의 대칭 무조건적인 복종과 충성도 배놓을 수 없는 요건이었다. 
대원들은 독특한 훈장을 단 걸은 제복을 입었다.

처음에는 300명 정도였다가 1933년 나치 집권 당시에는 5만 명이 넘을 정 
도로 규모가 늘어났다. 힐러가 SS의 도움으로 1934년 나치스돌격대(SA)를 
숙청해 정치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후 힐러에 복종하는 독립집단이 되었 
다. 1934년에서 1936년까지 힐러는 전 독일 경찰력을 장악하고 조직을 통 
합. 정리했다. 1939년에는 대원이 25만 명으로 늘어났고 일반SS와 무장SS로 
분리되었다.

일반SS는 경찰과 인종 업무를 맡았고 조직으로는 제국중앙보안국(RSHA)・ 
치안경찰(Orpo)・보안경찰(Sipo) 등이 있었다. RSHA에는 보안대(SD)를 
두어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고 침보활동을 담당하게 했다. 보안경찰에는 범 
죄경찰(Kripo)과 계슈타포가 있었다.

무장SS는 일반 군대보다 강도 높고 철저한 훈련을 받았으며 최신 무기와 
전투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무기라는 부족할 때도 최우선 지급 대상이었다. 
당연에서도 엘리트조직으로 간주했고 상당한 특권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주었다. 전투능력이 탁월한 뿐 아니라 나치스 단체 가운데 극단적이고 폭력 
적이며 광신적인 활동으로 악명 높았다.

조직으로는 라이프슈탄담라테, 토텐코프페르벤데, 페르뤼크스트루페인 있 
었다. 라이프슈탄담라테는 힐러 경호 업무를 맡았고, 해골부대인 토텐코프 
페르벤데는 집단강제수용소를 관리했으며, 페르뤼크스트루페인 제2차 세계 
대전 때 39개 부대로 늘어 정규군과 함께 전투부대로 활약했다.

SS 대원들은 다른 인종을 증오하고 인간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교육을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정치범, 집시, 유대인, 폴란드 지도자, 공산당 간부, 게릴라 지하군, 소련 전쟁포로들을 대량 희생했다. 독일이 패배한 후 1946년 뮌헨협정 연합국대표단에서 범죄단체로 선언했다.

이처럼 광신의 비극은 역사상 많은 희생을 치렀던 것처럼 상대해서는 광신과 맹신을 멀리한 순리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계신다. 이러한 강조는 다음의 예문에서도 확인된다.

상체께서 경심에게 가르치시기를 “모든 일이 육속부담(欲速不達)이라. 사람 가르기에는 하여가 길 되고 못 되는 것은 다 인공에 있느니라.”(43)

백성이 국가를 믿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 않는다면 난신적자(亂臣 賊 子)가 될 것이다.(44)

수도자가 믿음이 부실하면 결과적으로 난법난도자가 된다.(45)

9) 믿음은 천지의 진액(津液)

상체께서는 천지 지으신 오주(五歟)의 내용을 공개하시면서, 그것이 천지의 진액임을 강조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그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자.

상체께서 정미여 선달 스무 살을 때 신 경수를 그의 집에서 찾아서 담화하시다. 상체께서 오(姚)의 역상일월성진경수인시(曆像日月星辰敬授人時)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일월이 아니면 빛 갑데기요. 일월은 지인(知人)이 아니면 허영(虛影)이요. 당요(唐姚)가 일월의 범을 알아내어 백성에게 가르쳤으므로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이치가 비로소 인류에게 주어졌나리” 하셨다. 이때 상체께서 일월무사치만물(日月無私治萬物) 강산 유도수백행(江山有道受百行)을 가르치고 오주(五歟)를 지어 천지의 진액(津液)이라 이름하시나 그 오주는 이리하다고.

신天地家家長世 日月日月萬事知
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高祿誠信信 壽命誠信信 至氣今至願為大降
明德觀音八陰八陽 至氣今至願為大降
三界解魔大帝神位願趁天尊關聖帝君(46)

43) 「典經」, 교법 2장 34절
44) 「매술지침」, 53쪽
45) 위의 책, 같은 곳
46) 「典經」, 교운, 1장 30절
위의 내용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오주의 내용에서 성경신은 복록 수명과 깃은 관련성을 지니며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복록과 수명은 인간의 생과 관련하여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조건이다. 그러면 복록 수명과 관련한 또 다른 내용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자.

세상에서 수명 복록이라 하여 수명을 복록보다 중히 여기나 복록이 적고 수명만 길면 그것 보다는 역할이 없다는 것이야 그러므로 나는 수명보다 복록을 중히 하노니 념이 멀어지면 즉나라.

이처럼 상제께서는 복록 수명을 강조하시면서 그 중에서도 념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념은 인간의 수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즉 자신의 념은 자신의 생명을 결정하는 준거가 되며 인간은 자신이 지은 념만 큼 자신의 삶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념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신인 것이며, 성경신은 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대순지침』에서는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성·경·신으로 해원상을 이루며 생사판단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성경신은 분명 생사판단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동시에 해원상을 이루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아래의『기록』내용은 그 의미를 좀 더 보충해 주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浩浩道主奉命明明度數無私至公引導乎無量極樂五萬年清華之世盡我道友
　嚴我道友極誠極敬至信至德難求之欲虛過一世之冤至千斯而豈不屑冤哉喜吾
　道友勤哉勉哉 48)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네고 넓은 도주께서는 밤과 밤의 도수를 받고 무사지공하게 우리를 무량극락오만년 청화세계로 인도하다. 엄숙하라 나의 도우들이여 정성과 공경과 지극한 믿음을 다하라 구하고자 하였으나 구하기

47)『典經』, 교법 1장 16절
48)『典經』, 교운 2장 41절
여러워 일세를 져서 보낸 그 원을 여기에 이르러 머지 해원하지 못하리요 기뻐하라 나의 도우들이며 힘들지 않아. 라는 내용으로 대략적으로 들어된다. 따라서 해원상생의 근원적 원리가 여기에서도 역시 성경신을 다함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이처럼 성경신은 대순상상의 핵심상상인 해원상생의 실천의 바탕이 되는 것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분명 성경신은 천지와 같은 관련성을 지나고 있는데, 먼저 그러한 직접적 사실을『典經』을 통해 확인해보자.

…宙宇壽命 至氣今至頃爲大降 天地誠敬信…

먼저 위의 내용에서 우주(宇宙)가 거꾸로 주우(宙字)로 표기된 것은 후천의 시·공간적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된다. 그 이유는 후천세계에서는 천하가 한 집안이 되므로 공간적 특징보다는 시간적 특성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듯은 천지와 관련하여 성경신은 같은 관련성을 맺고 있는데, 그것은 천지가 성경신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앞서 성경신의 논의와 그것의 특점을 감안한다면 천지를 이루어나가고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려가 성경신임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된다. 따라서 인간의 수양이 성경신을 통해 완성을 이루게 되면 천지와 합일을 이루는 극치의 경지를 이루어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다음 장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0) 믿음은 자아대성(自我大成)의 기초

이장에서는 믿음이 자아를 이루는데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그것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대순상상에 나타나는 신의 특성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러면 먼저 그러한 사실과 관련이 있는『典經』내용을 통해 그것을 확인해 보자.

하루는 상계에서 자신이 하사는 일을 탑자의 일에 비유하시나라. “옛날

49)『典經』, 교운 1장 66절
여면 당자가 있었느냐니, 그는 자신이 방향하여 보낸 허술 세월을 회과 자책하여 내 일생을 어떻게 헛가게 보내어 후세에 남김이 없으니 어찌 한스럽지 아니하리요. 지금부터라도 신선을 만나서 선학을 배우겠노라고 개심하소니. 그러더니 차에 갈자기 심신이 상해하여 저리니 들 ולה나에 올라가 신선한 문을 만나니, 그 신선이 너가 이제 무위처 선학을 뜻하니 심히 가상하다. 내가 너에게 선학을 가르치리니 정결한 곳에 도장을 갖고 여러 동지를 모으고 이르러. 방탕자는 그 신선의 말대로 정신을 차리고 동지를 모으기 시작하였으나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방탕을 알고 따르지 않는지라. 경우 몇 사람만의 응락을 받고 이들과 함께 도장을 차렸던 바 갈자기 천상으로부터 체온이 찬란하고 선악소리가 들리니 그 신선이 나타나서 선학을 가르쳤도다.”

위의 예문에 제시된 내용은 일차적으로 믿음과 관련하여 그것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주요한 내용으로 파악된다. 먼저 상제님의 일은 당자의 비유처럼 일반인들이 주로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어려운 일임을 강조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개과천선의 마음은 신선(神仙)이 될 수 있는 선학(仙學)을 배울 수 있는 바탕이 될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수도의 노력이 쌓일리 하지 않은 결과 선학을 배워 자아의 완성을 이루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믿음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典經』의 다른 내용을 통해 그것을 확인해 보자.

그리고 하루는 종도들에게 지난 날의 일을 밝혀시나라. "최풍현(崔風軒)이라는 고홍(高興) 사람은 유훘장(柳訓長)의 하인인데 늘 술에 취해 있는 사람과 같이 그 연행이 거칠으니 일처리에 남보다 뛰어난지라 혼장은 속으로 그 일을 아꼈다. 혼장은 왜건이 취임한다는 소문에 민심이 흘어지는 터에 피난한 길을 그에게 부탁하였다. 풍현은 수차 거절하다가 주인의 성의에 이겨지 못하여 가산을 판어서 나에게 맡길 수 있냐고 물었다. 유훘장이 기꺼이 응락하고 가산을 판어서 그에게 맡겼다. 풍현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남마다 술을 마시며 방탕하여도 유훘장은 아예 모르는 채 하루나 하루는 최풍현이 죽었다는 부고를 받고 뿌박의 일로 크게 낙담하면서 풍현의 집에 가서 보니 초상이난지라, 그는 하는 수 없이 그의 아들을 위로하고 혹 유언이 없으나 아오리 그 아들이 최형장에게 통지하여 그 가족들에게 복을 입혀 성양을 따서 나를 지리산(智異山) 아무 곳에 장사하게 하라"고 전하였다. 이 유언을 들고 유훘장은 풍현을 크게 믿었던 터무로 집에 돌아와서

50)『典經』, 교법 3장 16절
가족에게 의논하니 다만 큰 아들만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도다. 사흘이 지나 모두들 은순하여右侧산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산사에서 상여를 버리고 이곳으로 빨리 오르라라는 소리가 들리는지라. 모두 그 쪽을 바라 보니 최풍현이. 모두를 반겨 찾아 올라가니 그 곳의 집 한 채에 풍부한 식량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최풍현을 따라 산 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가리키는 대로 내려다 보니 사방이 불바다를 이루고 있는지라. 그 까닭을 물으니 그는 왜병이 침입하여 마을마다 불을 지른 것이라" 이르도다. 51)

보라 선술을 얻고자 십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나로 마침내 그의 성의로 하늘에 올림을 벗은 머슴을. 그는 선술을 벗우고자 스승을 찾았으니 그 스승은 선술을 가르치기 전에 너무 성의를 보이려고 요구하려. 그 머슴이 십년 동안의 진심(盡心)결력(竭力)을 다한 농사 끝에야 스승은 머슴을 여유가게 해서 '물위에 뻗은 머리가자기에 올라가서 물위에 뻗어 나와라라. 그러면 선술에 통하라라'고 열려주었다. 머슴은 믿고 나뭇가지에 올라 뛰어 내려 뒤밖에 오색구름이 모이고 선악이 올리면서 찬란한 보연이 머슴을 투우고 천상으로 올라가려. 52)

이어 말씀하시기를 '나의 일은 여동빈(呂洞賓)의 일과 같으니. 그가 인간의 인연을 찾아서 장생술을 전하려고 빛장사로 변장하고 거리에서 이 빛으로 머리를 빛으면 흰 머리가 겉어지고 꼴은 허리가 끝나고 노 구가 청춘이 되나니 이 빛 같은 천령이로다라고 의치시 든는 사람마다 허 황하다 하여 따르는 사람이 없기에 그가 스스로 한 노구에게 시험하여 보니 과연 말과 같은지라. 그제야 모든 사람이 서로 앞을 다투어 모여 오니 승천하였느니라.' 53)

이와 같은 예문의 내용은 믿음의 중요성과 함께 그것의 실천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이는 대순사상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면서, 믿음이 자아대성의 가장 중요한 요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도주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도주께서 통사통(通水洞) 제세에서 어느날 "오도자 금불문 고불문지도야 (吾道者今不聞 古不聞之道也)"라 밧고 닦기가 여러우나라" 하시고 다시 추종하는 여러 사람들을 앞에 모으고 무극대운(无極大運)의 해안상생대도(解冤相生大道)의 진리를 설법하시여 도(道)를 밝혀주셨겠다.54)

51)「典經」, 교범 3장 17절
52)「典經」, 예비 83절
53)「典經」, 예비 61절
이처럼 대순사상은 지금도 듣지 못하고 예전에도 듣지 못한 새로운 의미를 지니는 것 인만큼 믿고 따르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간직하게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 믿음의 중요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것의 실현은 자아대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완공력이 되는 것이다. 아래의 내용은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관성의 믿음을 사실화하여 삼계삼법(三界三法)의 성·경·신으로 자아대성(自我大成)을 위한 작업이 신(信)인 것이다. 55)

### IV. 맺음말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고, 대순사상과 동학에서 제시되고 있는 성경신의 내용을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 것이다.

먼저 공통점을 살펴보면 대 순사상과 동학에서는 모두 성경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것을 수행의 기초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양자간의 합일적 특성이 도출된다.

동학의 경전에서는 성·경·신 즉자는 동학의 전체성을 드러내는 요체로 주장될 만큼 그것은 수행의 기초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순사상에서도 성경신은 신조에서 삼체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 양자간에 성경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이 증명된다.

대순사상에 나타나는 신의 개념은 의심 없는 곧은 신념인 것이다. 또한 그것이 지니고 있는 특성은 각각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며, 믿음의 주요한 대상은 상제님과 상제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집중된다. 또한 신명에 대한 믿음과 함께 인간의 생사에 믿음이 중요한 관련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또한 천지공사에서 인간의 믿음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믿음의 결과는 해인의 헌정과 함께 자아대성의 결과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믿음은 천지공사의 진약이며, 천지를 지탱하고 운영해 가는 원리로 강조되고 있다. 이렇듯 성경신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절대가치에 근거해 볼 때 인간의 수양을 통해 그것

---

54) 「典範」, 교문 2장 18절
55) 「대순지침」, 53쪽
을 이루게 되면 곧 자아대성(自我大成)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한 작업이 신(信)인 것이다. 따라서 일상 생활을 통해 성경신을 실천하는 방법은 토덕·교화·수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성경신은 공극의 바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포덕·교화·수도 및 모든 일이 성·경·신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56}\)

‘일심’과 성경신에 바탕을 둔 수행에 있어 성경신은 그것의 가장 궁극적이고 모범적인 노선(路線)이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수행은 성경신의 왕도를 따라 진행하니, ‘성’은 심신을 다하여 일심을 견수하고 간단(簡斷)과 강약의 도(度)가 없게 하는 것이요, ‘경’은 일심을 수시로 반성하여 자만함이 불급(及)을 계(戒)하는 것이요, ‘신’은 필승의 신념을 확립하여 의력을 발양하는 것이다. 또 성경신이 외계로 표출될 때 행의(行義)를 제율(儒律)하는 것이나, ‘마음 속이지 않음’과 ‘척척지 않음’은 성의 표출이고, ‘언덕을 바르게 함’과 ‘남 잘되게 함’은 경의 표출이며, 시보상성(施報相成)은 신의 표출이다. 그러므로 이삼과 같은 다섯가지 혼화가 그것들의 내적 동인으로서의 성·경·신을 항상 보강함으로써 이루어지고, 또한 성·경·신은 ‘일심’을 보장하는 것이다. 요컨데 ‘일심’이 지속되어 어느 특정한 단계에 도달하면 다섯 규범에 성격합화를 얻어 안심안심과 경천수도의 경지를 완성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참고문헌】

大巡真理會 教務部, 「典經」, 서울: 大巡真理會 出版部
大巡真理會 教務部, 「大巡指針」, 서울: 大巡真理會 出版部
大巡真理會 教務部, 「大巡真理會 要覧」, 서울: 大巡真理會 出版部
「東京大典」
「龍潭遺詞」
두산세계대백과 EN CYBER
金 鐸, 「동학과 증산교의 만남」, 서울: 한누리미디어